지역 소식통

공덕면, 월남참전유공자 자택 방문 명패 달기 추진

김제시 공덕면(면장 천만영)은 지난 17일, 신규로 선정된 월남참전유공자 자택을 방문하여 문패와 나란히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했다.

공덕면은 2019년 6월 국가유공자 20가구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부착해 드린 이후, 올해 신규로 선정된 월남참전유공자 8가구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하며, 위로와 격려을 아끼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덕면장은 해당마을 이장과 함께 국가유공자 각 가정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둔산영어도서관 어린이 · 청소년 독서교실

완주군은 둔산영어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독서교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 능력·습관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둔산영어도서관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 오감 동시 표현하기, 나만의 짧은 동화 만들기 등 '그림책으로 상상력 키우기'를 진행한다.

또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원문 동화책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배경, 스토리 라인을 분석하며 공부하는 '영어 스토리텔링' 수업을 진행한다.

둔산영어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주최하는 초등생 대상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wa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 등 선제 대응 총력

박성일 완주군수,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정책 발굴과 함께 혁신도시 시즌 2에 집중할 것" 강조

완주군이 한국판 뉴딜 정책과 혁신도시 시즌2의 선제적 대응 기치를 내걸었다.

박성일 군수는 20일 간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과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과 관련 정보 파악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군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 등에 대응한 타 지역 동향 파악과 함께 전북도와 협력한 연계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 14일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박 군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 사업 발굴과 함께 혁신도시 시즌2의 정보 수집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과 테크노밸리 2산단 추진,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 문화도시 본 지정, 완주방문의해 추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현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또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심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금부터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해나가야 한다"며 "부처에서 예산반영에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완주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계10 동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지난 10일 돈육200근을 전달했다.

"홀로 어르신께 기운 드리고 싶어"

완주군 군계10 동지회, 돈육 200근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

완주군 군계10 동지회가 완주군에 돈육을 전달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계10 동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지난 10일 돈육200근을 전달했다.

군계10 동지회는 지역사랑 나눔봉사에 뜻을 가진 지역주민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음식나눔봉사 독거노인가정 안전등 설치, 공연, 환경정화, 가로등 설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돈육은 봉동, 용진 지역에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지내는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된다.

군계10 동지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쇠약해졌을 어르신들께 작으나마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기운을 드리고 싶었다"며 "회원들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완주를 환하게 밝히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농업인단체 연합회와 간담회

지역 농정 발전 위한 농업 현안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 가져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8개 농업인단체가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김제시 농업인단체 연합회(회장 최규엽) 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농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여 김제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제시는 20일 관내 8개 농업인단체가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김제시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농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규엽 연합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농업인 단체연합회 임원들이 만나 농업농촌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농업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모습에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박준배 시장은 "김제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농업인단체 연합회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김제시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과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으로 동·리별 위촉된 19개 읍·면·동 900여명의 보증인들에게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 민원지적과는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된 동·리별 5~10명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2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 대해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요령 등을 교육한다.

보증인 위촉이 끝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해당 읍면동 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보증인의 임무는 대행시킬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성실·신속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4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법무사·법무사 포함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요건이 강화된 만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목회자 초청 간담회

김제시 백구면(면장 신형순)은 20일 백구면 소재 개신교 목회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면 행정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을 심방을 통해 잘 알고있는 목회자님들을 초청해 복지 지원 관련 행정 정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목회자님들은"백구면에 있는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방안 모색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순 백구면장은 "바쁘신 가운데 우리 지역의 복지 행정을 위해 참석해주신 목회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더 행복한 백구면 건설에 앞으로도 종교단체에서 뜻과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일센터, 2020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소연숙)는 20일 오후3시 직업교육훈련실에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이엔푸드 외 14개 업체와 여성친화적 일터조성 및 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기업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구인구직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으로, 3년간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여성인력 적극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맺은 채용업체는 지난해까지 57개, 올해 15개를 추가해 총 72개이며, 여성친화 일촌기업에 대해서는 새일여성(결혼이민)인턴 및 환경개선사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며, 인턴은 1인당 3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